



특집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선정 결과

-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식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신설
- ▣ 『도서관법』 시행
- ▣ 『독서문화진흥법』 제정·공포
- ▣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 ▣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올해의 유망직종 발표: 도서관 사서, 유망직종에 선정
- ▣ 서울시 사립고등학교 109개교, 사서교사 교원정원의 별도정원 확정
-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발표
- ▣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로 확대
- ▣ 국립중앙도서관,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개최
- ▣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조사기간 2007년 12월 6일~12월 15일, 총 참여인원 117명]

특 집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총평과 해설

우리협회는 지난 1년간 도서관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과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짚어보면서,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2007년 10대 뉴스 선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출범이었다. 도서관 정책을 이끌어 가는 최고 의결기구인 위원회와 실무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함께 발족하므로써 우리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 각 관종별 도서관에 대한 연계, 종합적인 도서관발전계획의 수립,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선정과 지원의 문제 등 위원회와 기획단이 도서관계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내어 놓을 정책과 과제에 대해 전 도서관인은 설레임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

2006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도서관법」으로 단독 분리되어 2007년 4월 공포·시행된 일도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도서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1세기 우리나라 지식과 문화 부문의 핵심 기반시설로 거듭 태어나는 도서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지난 11월 초, 「학교도서관진흥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 대회’를 개최했었다. 유관기관 관계자, 현장의 사서, 대학 교수, 문헌정보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추운 날씨에 정부청사 앞에 모여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11월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이라 명명된 법이 생긴다는 의미에서만 본다면 커다란 진보라 할 수 있겠으나, 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공포된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금 학교도서관계에서는 이 법이 지닌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충분한 논의와 하나된 우리의 목소리를 뉘으로써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 제정에는 「도서관법」과 한 목소리로 함께 가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되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와 관련하여, 이 외에도 서울시 100여개 사립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를 교원정원의 별도 정원으로 확정한 것,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 등을 발표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며 그 자리를 바로 잡아가고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우리 학교도서관계의 꾀꿍한 모습이 인상적인 한 해였다.

미국의 US News & World Report에서 2007년의 25개 유망직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한 직종으로 도서관 사서가 선정되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가지 방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를 찾아가는 네비게이터이며 ‘정보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맡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사서의 현주소임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발표가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현장의 사서들에게 동기부여가 됨은 물론 진정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있어 자극제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라는 새로운 행사를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로 2007년에는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는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게 됨으로써 우리 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벤트와 볼 기회,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10대 뉴스의 마지막 화두는 지역대표도서관이었다. 각 지역에 대표도서관을 두고, 주변 도서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대표도서관 선정의 활성화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식이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신설,故육병일 한국점자도서관장의 보관문화훈장 서훈, 우리협회의 신임 김태승 회장 및 임원 취임 등도 작년 1년간 도서관계에서 일어났던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또한 독일문화원 자료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역시 뜨거운 관심속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일로 기억되었다.

2007 도서관계 10대 뉴스 선정 과정과 결과발표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2007년 12월 초, 협회에서 도서관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회원지원부에서 회의를 거쳐 200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도서관문화의 기사를 중심으로 함께 검토해 총 26건의 후보 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도서관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에 참여하여 제시된 26개의 기사 중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뉴스 10개를 반드시 선정해야만 온라인 투표에 집계되도록 하였으며, 이번 투표에는 총 117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117명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2007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정리: 김태경 회원협력팀장]

순위	내 용	백분율
1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8.80%
2	『도서관법』 시행	8.72%
3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공포	6.84%
4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6.75%
5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올해의 유망직종 발표 : 도서관 사서, 유망직종에 선정	6.41%
6	서울시 사립고등학교 109개교, 사서교사 교원정원의 별도정원 확정	6.24%
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발표	5.98%
8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로 확대	5.56%
9	국립중앙도서관,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개최	5.47%
10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5.13%
11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신설	5.04%
12	개정 '저작권법' 시행	4.87%
13	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법률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3.76%
14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KORCIS) 구축	3.33%
15	한국도서관협회, 제44회 전국도서관대회(2007.10.10-12) 개최	2.31%
16	경향신문, 2007 연중 기획시리즈 '책읽기 365' 연재	2.14%
17	경기도, 이라크 아르빌시의 자이툰도서관 설립 지원	2.14%
18	한국도서관협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 《도서관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개최	1.71%
19	IFLA-도서관의 유아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	1.71%
20	한국도서관협회, 제23대 김태승 회장 및 임원 취임	1.62%
21	故육병일 한국점자도서관장, 보관문화훈장 서훈	1.37%
22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조직위원회 해산	1.28%
23	한국도서관협회, 제43회 도서관주간(2007. 4. 12-18) 실시	1.11%
24	한국도서관협회,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대표단참가	0.68%
25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0.51%
26	한국도서관협회, 9월 독서의 달 실시	0.51%
	계	100.00%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출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발족식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신설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6월 19일 (화) 광화문 도림빌딩에서 대통령 영부인 권영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졌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2월 27일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 정책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한 조정·협의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전면개정한 「도서관법」(법률제8029호, 2007.4.5. 발효)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도서관정보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협의·조정·평가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갖추므로써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된 한상완 위원장은 충남당진 출신으로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한국문헌정보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부총장,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 단장을 포함한 3팀 25명으로 구성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설립되었다. 이날 위원회 및 기획단 발족식에는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와 한상완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및 위원,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 한국도서관협회 명예회장(국회의원), 김재운 국회의원, 권경상 국립중앙도서관장, 문용주 국회도서관장, 민일영 법원도서관장 등 많은 도서관계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위원회 발족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권양숙 여사는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세계 각국이 지식 정보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서관인들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정부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및 기획단의 발족을 계기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 조정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도서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도서관법」 시행

2006년 10월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이 4월 5일(목)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른 「도서관법 시행령」은 2007년 3월 27일(화) 대통령령 제19963호로, 「도서관법 시행규칙」은 2007년 4월 4일(수) 문화관광부령 제161호로 각각 공포되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정 · 공포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별개의 단행 법률로 제안된 「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2007년을 ‘독서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서문화진흥법」(문화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175493)이 11월 30일(목) 제17대 국회 제262회기 제15차 본회에서 재석의원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 가결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월 4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도서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고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별개의 단행 법률로 만들어 제안된 것이다.

이번 독서진흥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정이유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교 및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문화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독서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제5조제1항).

2. 문화관광부장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6조제1항).
3. 독서문화진흥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독서진흥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함(제7조제1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학교·직장에서의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내지 제11조).
5.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6. 정부는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정기 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5조).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지난 11월 2일(금) 14시, 학교도서관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학교도서관정상화 및 사서교사 배치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지난 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개최된 이번 집회는 우리협회를 비롯한 공대위 참여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 사서교사,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사서·교원·시민단체의 회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경기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대진대, 성균관대, 명지대, 전주대, 전북대, 숭의여자대학, 대림대학,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집회는 유인물 배포, 대학생들의 문화공연, 투쟁결의서 낭독, 공대위 참여단체의 대표자 발언 등으로 약 3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집회에 참여한 현직 사서교사 약 50여명은 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본인들의 사서교사 자격증을 찢으며, 학교도서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개선 및 사서교사 확충을 촉구하였다.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올해의 유망직종 발표 : 도서관 사서, 유망직종에 선정

미국 유에스 뉴스 & 월드 리포트는 최근 ‘올해 미국의 유망 직종’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 사서가 유망직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 잡지는 해당 직종의 급여, 사회적 지위와 함께 수련기간, 내부 경쟁, 삶의 질도 감안하고, 여기에 최근 경제 흐름과 직업 트렌드 등을 고려해 25개 유망 직종을 선정했다.

사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 속에서 갈수록 중요해질 ‘정보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줬다. 잡지는 직업 선택에도 ‘웰빙’이 강조되는 경향을 감안해 “경쟁이 심하지 않고 근무 환경이 쾌적한 것도 사서직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서 이외에도 의사, 검안사, 의료보조인, 공무원, 교육종사자, 경영컨설턴트, 성직자 등이 유망직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가 직종 간 향후 전망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처럼 보청기를 사용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청각치료사가 유망직종으로 꼽혔다. 또한 25개 유망 직종 중 9개가 건강·의료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반면 “변호사나 광고회사 임원의 업무는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지루한 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대부분의 변호사는 TV에서처럼 비싼 양복을 입고 법정에 나가는 대신 연간 2000시간을 서류에 파묻혀 지낸다”며 유망직종에서 제외했다. 또한 한때 각광받던 웹사이트·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유망직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서울시 사립고등학교 109개교, 사서교사 교원정원의 별도정원 확정

서울시 사립고등학교 중 109개 학교에 사서교사가 학급별로 정해지는 교원정원외의 별도 정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전체 학급별 정원내에 포함되어 있던 사서교사가 그 정원과 상관없이 학교마다 1명 더 인정됨으로 인해 개별 학교에서 전체교사 정원과 무관하게 사서교사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2003년부터 추진)”에 총 605억원을 투자할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계획을 지난 3월 2일(금)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금년 사업으로 설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학교도서관 수는 시·도 교육청 산하 1,200개교(특별교부금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국립학교 10개교(국비 5억원) 등 1,210개교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의 자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학생 1인당 장서수가 10.5권에 이르게 된다.

이와 아울러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외국학술지 보유 확대를 위해 2006년에 시작된 외

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10개의 외국학술지지원센터를 대학도서관에 설치하고 5,000여종의 외국학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모든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2006년에 1개 센터를 지정하였고, 2008년 4개, 2009년 2개, 2010년 3개 센터를 추가로 구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 등의 학술자료를 디지털 원문형태로 생성·유통시킬 수 있는 dCollection 보급 사업을 완료해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생산한 학술정보를 학술연구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에 “초·중등학교 및 대학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1단계 사업이 끝남에 따라, 2단계(2008년~2012년)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학교도서관의 내실화 및 대학도서관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로 확대

2007년 1월 1일(월)부터 ISBN은 전세계적으로 13자리를 사용하게 됐다.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도 2007년 1월 1일(월)부터 발행자에 13자리 ISBN을 사용토록 번호를 배정하고 있다.

1970년대 ISBN시스템이 도입된 시점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쇄출판물 및 전자출판물 등 출판량이 급증해 기존 10자리 ISBN으로는 한계에 달하여 추가번호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제 ISBN관리기는 2004년 11월 국제회의를 통해 2007년 1월 1일(월)부터 전세계적으로 ISBN 13자리로 확장기로 결정·공표하였고, ISBN 관련 국제규격(ISO2108) 및 한국산업규격(KSX6004)도 모두 13자리로 개정됐다.

바뀌게 된 번호구조는 ISBN 10자리 앞에 접두부 978을 추가하고 체크기호는 재계산한다.

■ 예시

- ISBN-10자리 : 89-7383-052-X
- ISBN-13자리 : 978-89-7383-052-7

국립중앙도서관,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의의와 역할을 부각하고,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온누리에 작은도서관”을 주제로 9월 12일(수)부터 13일(목)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 및 한얼광장 등에서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 지역 작은도서관 및 출판사 등 총 86개 기관과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도서관 축제’를 개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16개 시·도가 참가하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미래 디지털 도서관’을 주제로 제2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도서관 축제에서는 석보상절, 대동여지도를 비롯한 40종의 고문서 영인본 전시와 작은도서관 모델관, 미래의 디지털 도서관과 각 지역 도서관의 활동이 소개되었다. 또한 김

훈, 신경숙, 고정욱, 윤호섭 등 유명 작가의 사인회 및 강연, 도서 기증·나눔·할인 행사 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활동 행사도 마련됐다.

또한 도서관 축제와 연계해 “작은도서관 문화·체육 탐방 활동”이 9월 10일(월)부터 12일(수) 일정으로 2박 3일간 열렸는데 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됐다.

9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양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작은도서관 워크숍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재정, 법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올해 4월 시행된 「도서관법」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임기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운영조례’를 8월 6일(월) 공포했다.

경기도 도서관 관련 조례는 지역 간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지도·지원을 명문화해 지식정보복지 구현을 경기도의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였다. 조례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 및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식정보 격차 해소, 공공도서관의 지속적인 설립·육성 규정을 담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내 도서관의 육성발전시책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대표도서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8월 11일(토)부터 30일(목)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치·운영과 관련해 도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과 전라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